대중문학과 독자

김 창 식*

차 례

1. 여는 말	3. 대중문학의 성격
2.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과 그 문제점	4. 대중문학과 독자
	5. 닫는 말

1. 여는 말

대중문학이란 무엇보다 독자에게 친숙한 문학이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이다. 그것은 이에 대한 온갖 비난과 터무니없는 악평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존속·발전해 왔다. 문학연구자와 비평가들은 틈만 나면 대중문학의 문학적 결함과 그 유희성을 강조해 왔지만, 보통 독자들은 그런 술한 경고성 발언과 상관없이 이를 애독하고 즐겨 왔던 것이다. 이른바 ‘추천도서목록’은 학교 현장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이미 ‘사장된 문서’나 다름이 없다. 사람들이 등급에 든 작품보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작품에 더 몰리는 기이한 현상이 문학판에서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다시 말해서 독자 대중이 즐기는 문학과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문학 사이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고 그 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사이에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대중문학 자체가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한 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밥 애슐리(Bob Ashley)는 대중문학이 쉽게 읽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대중문학을 연구하는 일도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즉 “대중소설 연구는 사소하다는 이유로 널리 푸대접 받아 온 대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는 작업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연구가 어떤 면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 이런 애슐리의 지적은 우리 문학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실이다.

대중문학은 흔히 생각하듯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검토해 보나마나 뻔한 문학’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텍스트 차원에서는 단순할는지 몰라도 컨텍스트 차원에서는 그만큼 복잡한 문학이다. 이 컨텍스트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독자이다. 따라서 대중문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독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그 연구 성과도 회소한 우리의 문학판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 자체를 매우 힘들게 만 들고 있다. 그러나 문화연구와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이 문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데 힘입어 우리의 문학 연구에서도 점차 수용자 또는 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 글은 우리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우선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이 글의 논점을 더욱 뚜렷이 하고자 한다. 이어서 앞선 논의를 토 대로 대중문학의 성격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성격 규정에 입각하여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Ashley, Bob(1989), *The Study of Popular Fiction: A Source Book*(London: Pinter Publishers), 1쪽.

2.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과 그 문제점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중문학은 독자의 저급한 취향에 영합하는 문학이다.
- 2) 대중문학은 독자에게 거짓 위안과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케 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잊게 만든다.
- 3) 독자 대중이 대중문학에 경도되는 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이 낮거나 작품 해독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작품 해독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1)의 견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는 저급한 것만을 좋아한다는 발상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그런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저급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른바 고급과 저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면 이런 주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논의에서 줄기차게 되풀이해 온, 그리하여 이제는 너무 자주 써서 그 효과가 심히 의심스러운 도덕적·윤리적 잣대를 습관처럼 휘두를 뿐이다. 더욱이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단순하고 쉬운 것은 저급한 문학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고급 문학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다. 그러기에 이런 입장에 선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대중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문학이야말로 창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고품질'의 문학이 된다. 이런 까닭에 그들이 대중문학이 독자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에 성공한 사실을 놓고 문학의 질적 하락을 부추겼다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의 견해에서 문제점은 독자 대중을 철저히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여 대중문학의 수용적 측면을 무시하고 대중의 주체적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자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어진 의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문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독자는 부호화된 텍스트를 해독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문학이 제공하는 환상과 위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실의 모순이나 억압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 모순을 없애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시도가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될 때 이에 대한 '상상적 해결'을 꿈꾸기도 한다. 그런데 대중문학 비평가들은 이 상상적 해결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계모니 구축 수단으로 보고 대중이 그것에 몰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을 마비시켜 기성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그런데 상상적 해결을 꿈꾸는 것과 도피주의적인 경험 자체는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우리요 이를 잠시 잊어버리고 어떤 위안과 오락을 찾는 것도 우리다. 말하자면 이 둘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²⁾ 대중문학이 이에 대한 갖은 비난과 혐담에도 불구하고 그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존속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의 문제점은 독자 대중의 자발적 의지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한낱 계몽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자주 들먹거리는 법칙이 있다. 곧 '그레삼의 법칙'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은 경제 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부문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부문에서는 악화와 양화의 구분이 분명하고 그러한 구분이 절대적일지 모르겠으나, 문학에 있어서는 악화와 양

2) 칠레의 소설가 아리엘 도르프만 Ariel Dorfman은 대중매체의 서사들이 현실도피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실 정반대의 평가라고 하면서, 대중 서사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런 서사들이 인기를 누리든 까닭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도르프만의 이 말은 대중서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결국 그 말은 대중서사가 현실 또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지닌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아리엘 도르프만·한기욱 대담, 지구화시대의 대안적 서사를 찾아서, 《창작과비평》 100호, 1998년 여름, 443쪽.

화, 곧 좋은 문학(고급문학)과 그렇지 못한 문학(대중문학)의 구분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구분 자체가 (부르디외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된다.³⁾ 일반 독자가 대중문학을 선호하는 것은 고급문학에서는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엔 '정평이 난' 문학을 즐기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 늘 자리잡고 있다. 한편 대중문학은 지적 수준이 낮고 작품 감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오해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지적 수준이 높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추리소설이나 모험소설, 그리고 역사물이나 무협소설 따위를 탐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사르트르가 추리소설 애독자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중문학을 재미있게 읽고도 읽은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자신이 느낀 재미를 값싸고 유치한 것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읽고도 안 읽은 채, 보고도 못 본 채하는 지식인의 '타내기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사태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일반독자의 불편함과 지식인 독자의 허세를 떨쳐버리는 길은 대중문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길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왕의 논의는 대중문학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나머지 독자 대중의 실상은 물론,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학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부르디외는 문화적 차이(cultural distinction)가 계급적 차이를 나타내고 이를 재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문학적 기호(cultural tastes)를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로 파악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고급/대중문화의 구분 혹은 그 구분의 바탕이 되고 있는 미학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고급/대중문화의 미학적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구분의 필요성은 바로 권력 관계의 재생산에 있다는 것이다.

강원두·원용진·전규찬(1998),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4-15쪽 참조.

3. 대중문학의 성격

문학이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문화 자산이다. 이른바 ‘행복한 소수 happy few’만이 문학을 향유 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계층의 성장과 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등과 함께 이런 소수만을 위한 문학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문학의 대중화는 문학쪽에서 보아 크게 환영할 일이지 결코 비난하거나 금기시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대중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데에는 이견(異見)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문학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문화계에 일어난 한 가지 재미난 사례가 있다. 즉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영화 <편지> 상영을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대중들은 황동규라는 시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그 속에 삽입된 「즐거운 편지」라는 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마치 그의 대표작처럼 되어 버렸다. 사실 「즐거운 편지」는 황동규의 대표작도 아니고 그가 19살 때 지은 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시로 말미암아 황동규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시 「즐거운 편지」는 비극적 사랑과 그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한 시로 대중들의 가슴에 깊게 아로새겨졌다. 다시 말해서 「즐거운 편지」는 시인 자신을 떠나 우리 사회의 공동 문화 자산이 된 것이다. 이 시대의 뛰어난 시인중의 한 사람인 황동규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그다지 특출한 작품도 아닌 「즐거운 편지」가 오히려 독자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후 그 시가 수록된 시집이 꽤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종의 ‘붐’을 조성하는 일이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즐거운 편지」의 경우는 좀 특이한 예이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들거나 TV 드라마로 만드는 일, 곧 문학의 영상화 문제도 앞으로 이런 문학의 대중화의 측면에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학은 결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말하자면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업적 쌓기나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학을 성역화하여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높이 쌓아 올리고, 그 닫힌 세계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로 신비스런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문학 담론을 생산해서도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문학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자 해독 능력을 지닌 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각 연령층이나 성별, 그리고 특정 계층에 따라 그들이 좋아하는 문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서열을 매기는 일은 어떤 특정한 문학을 특권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매우 다양하고 불투명·불순수한 문학 본래의 모습과도 어긋나는 일이라, 펄경 문학을 독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문학은 그 기원과 전통상 대중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학문의 대상이 되고 이른바 ‘전문 독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대중과의 단절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그런 단절을 오히려 문학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히 목도하게 되었다. 대중문학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진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글쓴이는 대중문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 1) 대중문학은 평균인의 문학이다. 여기서 ‘평균인’이란 ‘보통’ 사람, 즉 문자 해독 능력이나 작품 감상 능력, 문화적 체험, 사회적·경제적 지위, 학력 등 모든 부면에 걸쳐 남들보다 결코 뛰어나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평균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대중문학은 이런 평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실관과 세계관에 기초한 문학으로서, 보통 사람들의 꿈과 욕망 등을 보여주는 문학이다. 그러나 평균인의 문학이 곧 문학의 하향 평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섭은 순문예(고급문학)와 대중문학의 관계를 논하면서 순문예를 고급 요정 또는 비밀 요정에, 그리고 대중문학을 대중 식당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⁴⁾ 고급 요정에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락거리지만, 대중 식당은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급 요정만 남고 대중 식당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는

4) 이상섭(1976), 현대작가의 새로운 독자 인식, 『말의 질서』, 민음사.

가? 고급·비밀 요청도 필요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식당은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겠다. 대중 식당이 늘어난다고 음식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균인을 위한 문학이 많이 생겨난다고 문학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2) 대중문학은 ‘우리’끼리의 문학이다. 대중문학 작가에게 대중은 나와 분리된 ‘그들’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우리’이다. 그는 대중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그들의 소망과 욕구에 귀기울이며 그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학은 ‘우리’라는 동류의식에 바탕을 둔 문학이다.⁵⁾ 우리는 이른바 ‘엄숙한’ 문학이나 ‘순수문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도 없다. 그러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를 기꺼이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탄없이 표현하기도 한다. 「자유부인」의 작가가 누구인지 몰라도, 설사 그 작가가 옆에 앉아 있다 해도 그를 못 알아보기 십상이지만, 「자유부인」에 대해서만은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의 문학이란 비교적 공감대가 큰 문학이요, 독자 자신의 삶과 연계된 문학이라 하겠다.
- 3) 대중문학은 함께 즐기는 문학이다. 대중문학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문학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다같이 즐기는 문학이다. 문학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는 어떤 서열과 일정한 거리감이 발생하여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중문학의 장(場)은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사이에 두고 심리적·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일종의 축제의 공간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예화가 있다. 김말봉의 「짚레꼴」이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여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수십 명이 도서관으로 몰려가 하나 뿐인 신문을 보려고 아우성을 치다 나중에는 한 학생이 걸상 위에 올라가 낭독을 했다고 한다. 또 김광주의 「정협지」가 《경향신문》에 연재되

5) 이상섭(1976).

면서 장안에 술한 화제를 뿌렸을 때, 그 당시 대학가 하숙집에서는 주인공 노영탄의 안위가 하숙집 아주머니와 하숙생들의 큰 걱정거리였다고 한다.⁶⁾ 위의 두 작품을 가리켜 어떤 이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는 싸구려 통속소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독자들은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고 주인공의 삶 속에 자신을 투사시키면서 이를 함께 즐기는 것이다. 결국 고급문학의 장이 닫힌 공간이요, 모든 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되는 반면에, 대중문학의 장은 열린 공간이요, 집단적인 즐거움을 생성하는 공간이다. 또한 그것은 함께 즐기는 문학이기에 신비스럽고 성역화된 문학이 아니라 세속화된 문학이다. 말하자면 '저 높은 곳을 향한' 문학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문학인 셈이다.

4. 대중문학과 독자

이상에서 대략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가 밝혀졌겠지만, 여기서는 위의 개념 규정에 맞추어 이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균인의 문학'이란 측면과 독자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앞에서 평균인의 문학이 곧 문학의 하향 평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평균인의 문학을 지향하는 대중문학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문학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독서 인구를 계발함으로써 문학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독서층(특히 중·장년층)을 계발하는 데는 이런 평균인의 문학이 이른바 고급문학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학인들은 틈만 나면 문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대중문학이 지닌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 행여 대중문화나 대중문학에 '오염'(?)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문단속'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아무리 문단속을 하고 울타리를 높이 쌓아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문

6) 양평(1985), 『베스트셀러이야기』, 우석, 173쪽과 168쪽.

학의 ‘교집’만 심화시킬 뿐이다. 문학은 그 기원과 전통상 대중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끼리의 문학’이란 측면과 독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중문학은 그야말로 ‘우리끼리’의 문학이므로 독자가 그 앞에서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다. 독자는 난해한 암호문서를 해독하듯이 작품을 읽을 필요도 없고 어설픈 지식을 동원해 작품의 ‘신비’를 벗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 시와 같은 난해한 시는 전문 독자의 손에 맡겨 두고 우리는 그냥 소월과 동주의 시를 즐기면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읽다가 짜증이 나면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끼리의 문학은 엄숙함을 표나게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준다. 따라서 그런 작품을 읽은 뒤 독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른바 ‘엄숙한’ 문학이나 순문에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교과서적 지식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사실상 제한된 것임을 생각할 때, 대중문학에 대한 이런 독자의 솔직하고 거리낌없는 반응은 문학 작품의 ‘주체적 읽기’를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문학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즐기는 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함께 즐기는 문학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학의 정정이 별 소용없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이라면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비평가들은 창작 행위나 독서 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설명하여 문학을 함께 즐기는 열린 공간으로 이어놓지 못했다. 심지어 어떤 비평가는 문학 작품에다 그만의 독특한 부호를 새겨놓고는 그것이 그 작품의 실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함께 즐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대중문학은 이런 원천적 봉쇄가 불가능한 문학이다. 이로 보아 비평가가 대중문학에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대중문학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독자들은 ‘함께 즐기는’ 문학인 대중문학을 통해 지금까지 문학에 주눅들었던 마음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문학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다. 엄숙한 문학을

지지하는 비평가들은 문학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순수문학론자는 그런 주장은 문학을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의 순수성을 흐려 놓는다며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문학의 보편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문학이 대단한 일을 하다고 생각할 때, 문학의 영역은 위축되기 십상이며 그로 인해 그야말로 ‘문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또 문학이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일쑤며 이른바 ‘문학성’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학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또 순수한 것도 아니다. 단지 문학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생겨났으며,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역할을 다한 셈이 된다. 함께 즐기는 문학이란 이런 의사소통이 최적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5. 닫는 말

대중문화 또는 대중문학은 이 시대의 하나의 화두이다. 그만큼 대중문화 또는 대중문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대중문학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이다. 그런 입장에서 글쓴이는 대중문학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문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중문학의 성격을 ‘평균인의 문학’, ‘우리끼리의 문학’, ‘함께 즐기는 문학’ 등으로 나누어 새롭게 규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위의 성격 규정에 따라 차례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학은 평균인의 문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문학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독서 인구를 계발함으로써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2) 우리끼리의 문학은 엄숙함을 표나게 내세우지 않

기 때문에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준다. 따라서 그런 작품을 읽은 뒤 독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엄숙한’ 문학이나 순문에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교과서적 지식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사실상 제한된 것임을 생각할 때, 대중문학에 대한 이런 독자의 솔직하고 거리낌없는 반응은 문학 작품의 ‘주체적 읽기’를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문학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3) 대중문학은 함께 즐기는 문학이므로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독자들은 함께 즐기는 문학인 대중문학을 통해 지금까지 문학에 주눅들었던 마음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문학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대중문학과 독자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우리 문학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아직은 가설의 단계에 머무르고 만 것들이 적지 않다. 이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대중문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문화적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변혁의 물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완고하게 과거의 문학관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우리 문학의 전통과 미래를 폭넓게 통찰하면서 문학에 대한 보다 유연한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학은 전통과 변혁이란 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문학이 널리 보급된 이래로 대중문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존속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문학은 그 발흥과 개화가 우리 문학의 근대적 전환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백년 간의 우리 문학과 문학 연구를 반성하고 새로운 문학적 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찌 보면 근대문학의 역사는, 이광수·최남선으로 대표되는 일본 유학생 중심의 시민 문학이 사대부문학으로부터 주도권을 넘겨 받은 이후 구비문학과 대중문학의 전통을 끝없이 억압해 온 역사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백년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검토는 우리 문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bstract

The popular Literature and the Reader

Kim Chang-Sik

The popular culture or the popular literature is the topic of our period. This points that the popular literature is closely connected with our everyday life. I'd like to say that we should make a serious examination of the popular literature.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newly pr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literature, and then roughly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r literature and the reader. The results run as follows.

First of all, in order to get rid of the preoccupations and misunderstandings of the popular literature, I have divided it into three branches, 'the literature for the average man,' 'the literature between us,' and 'the literature to enjoy together.'

And then, I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r literature and the reader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1) I'd like to say that the popular literature plays an important part in enlarging the reader's population, not bringing about the literature a deterioration, because it is 'the literature for the average man.' 2) 'The literature between us' makes people read comfortably and pleasantly, by not forcing them to be serious. For that reason, the reader can make free expressions of his or her thought and feelings, after reading the popular works. I have an idea that the reader's response to the 'serious' literature or the pure literature is not beyond a schoolbook and limited. Therefore, I dare to say that the popular literature will help the reader to expand his or her appreciative ability by guiding him or her to the 'subjective reading'. 3) No one can hold

hegemony over the popular literature, because it is 'the literature to enjoy together.' It is invited for the reader only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literature. As a result, through the popular literature the reader can resolutely beat his or her shrunken feeling, and heartily enjoy and love the literature.